



| | |
|--------------|---|
| 제목 | Global Interests: Renaissance Art between East & West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Cornell University Press |
| 발행일 | 2000. 8. 31. |
| 저자 | Lisa Jardine, Jerry Brotton |
| 출판도시 | New York |
| 페이지수 | 224 |
| ISBN 또는 ISSN | 978-1848934061 |

내용 요약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사에서 서구의 전유물로 규정한 르네상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획기적인 실험의 일환으로 이 책을 썼다. 근대의 발화점이 되기도 하는 서유럽 르네상스의 형성 과정이 세계사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주지하는바 유럽 르네상스는 그리스·로마가 대변하는 고대의 문예부흥운동이다. 유럽의 ‘암흑시대’로 일컬어지는 중세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고대의 문예를 인본주의를 주창함으로써 다시 꽃피우겠다는 서구의 의지가 반영되고 발현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적인 르네상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해 근본적으로 질문한다. 당시 유행되었던 미술품과 사치품을 분석하면서 저자들은 르네상스 문화 속에 이국적이고, 심지어 위험하며, 항상 주변적인 동양의 문화가 많이 들어있고 그것을 충분히 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70여 점의 삽화를 제공하고 피사넬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뒤러 등의 작품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저자들은 우선 유럽 르네상스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당시의 초상화, 태피스트리, 승마 예술품 등에서 르네상스시기에 동서양이 서로 주고받은 무역품을 찾아 분석하는데, 저자들은 르네상스 유럽과 오스만 제국이 놀라울 정도로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당시 동양이, 특히 위대한 동양의 정복자 슐레이만과 전성기의 오스만 제국이 15, 6세기 서유럽에서 출현한 르네상스와 대조되거나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